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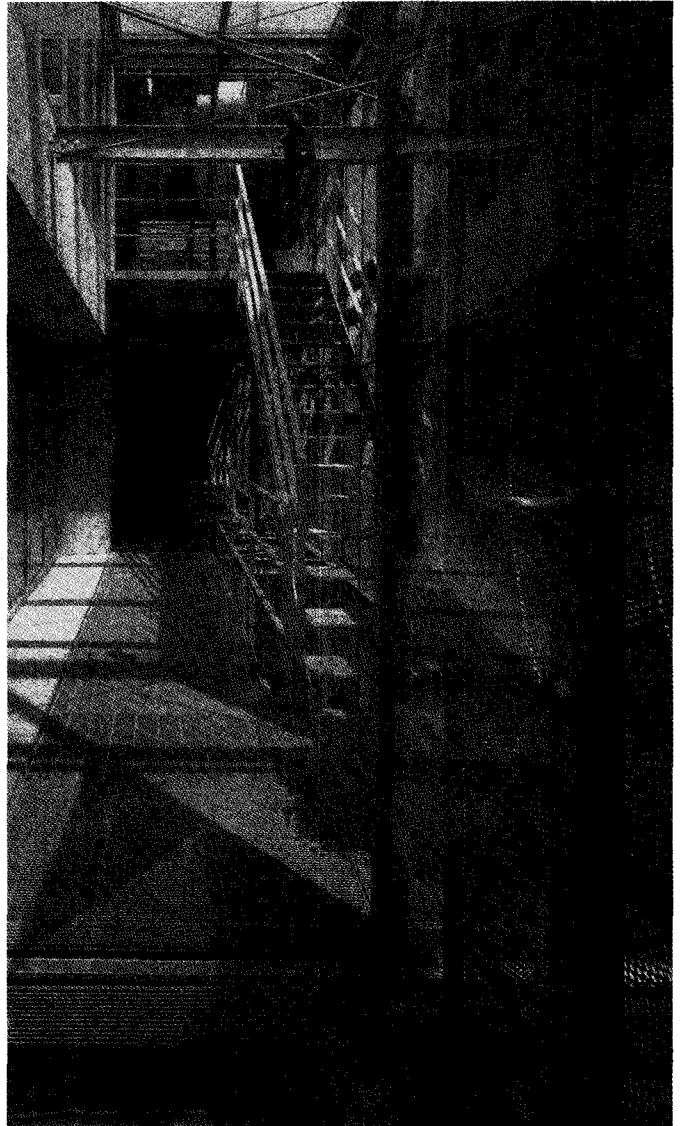


# 도심거주(都心居住)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는 반옥외적 계단실

벗꽃이 만개한 4월 상순 1, 2층 점포를 병설한 이 주택에서 건물주는 친지를 초청하여 완성 피로연을 열었다. 건물주는 東京·靑山의 '프롬 퍼스트'와 역 앞의 'QFRONT' 등 많은 상업시설의 프로듀서로 알려져있는 浜野중합연구소의 浜野安廣씨로 집의 건물의 중점을 "도심 한가운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각(街角)의 광장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건물주인 浜野씨의 요구는 '도심거주의 새로운 모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린리빙이라 부르는 제일 상층의 파티룸은 5층 월의 유리붙임의 계단실을 통하여 1, 2층의 테라스를 포함해 외부로 완만하게 연결한다. 소위 반옥외적인 부분이다. 4층에 있는 가족의 공용 공간은 길거리의 레스토랑이나 일터 등과 같은 '도시'의 일부, 즉 '가각의 광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설계되었다.

한편 가족의 개인방은 3층의 계단실에 면하여 연립주택과 같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다. 가족은 부부, 주인의 어머니, 20세와 18세의 아이들 둘을 합쳐 모두 5사람이다. 설계에 관여한 architecture WORKSHOP의 北山恒씨는 "자립한 어른으로 구성된 가족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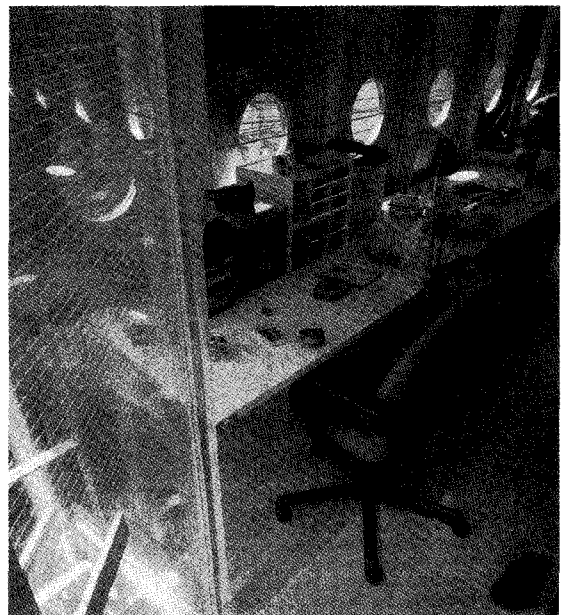
주택과 외부로 완만하게 연결하는 계단실. 유리를 바른 개방적인 공간. 왼쪽은 가족의 개인방이 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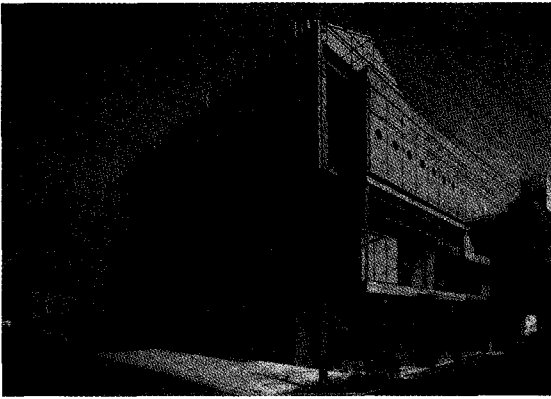
4층 그린리빙을 부엌쪽에서 본 모습. 부엌을 중심으로 한 대공간. 안쪽 닥트는 1층부터 종(縱)으로 관통해 있다.

방을 독립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인은 가족에 구속되지 않고 계단실을 통하여 외부로 출입이 가능하다. 각자가 자유로히 공용 공간을 포함한 ‘도시’를 이용하여 생활한다고 하는 취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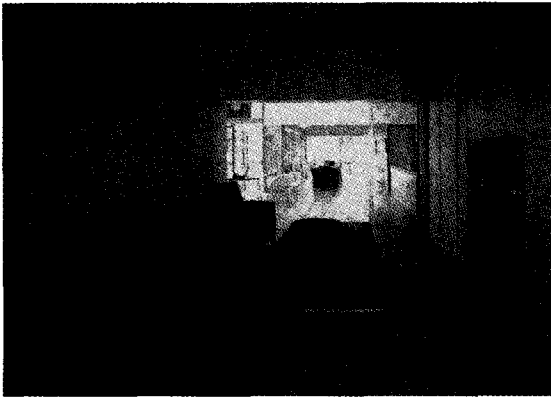
계단실에는 또 하나 건축공간 자체가 공조(共調)로 작용하는 장치도 있다. 유리로 피복된 4층 그린리빙의 따뜻한 공기와 1층의 찬공기를 순환시켜 실내의 온도를 조절한다. 에어컨디션으로 강제 냉방이나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온열환경(溫熱環境)이 된다. 北山씨가 표현하는 ‘호흡하는 집’이라고 의미와 건축이 일체가 된 환경장치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적인 환경’의 생활을 바라고 있는 浜野씨는 ‘나의 의중이 잘 반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外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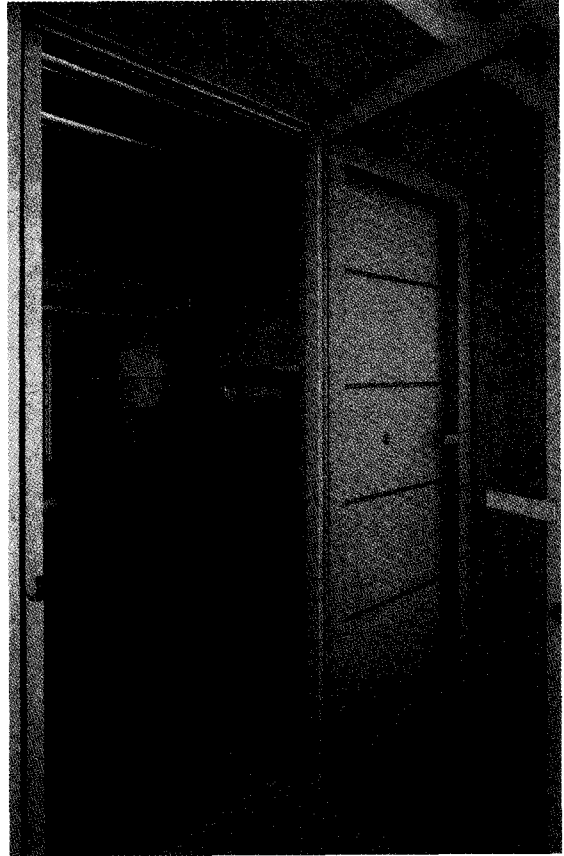
3층의 浜野씨 아틀리에. 아침 출근전에 일을 하거나 취미인 낚시 도구를 손보기도 한다. 침실에서는 일단 반육외적인 계단실을 통하여 액세스한다.



외관. 부지안의 벚나무를 남겨두는 것도 浜野씨의 요구중 하나였다. 3층의 개인방들에 붙어 있는 발코니는 가족만의 개인적인 공간이다.



AV감상을 즐기는 4층 미디어룸. 바닥재는 미국의 학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풍나무의 목재. 浜野씨는 소재의 좋은 점을 살리는 마감을 희망했다.



3층의 부부개인방. 동거하는 85세의 어머니를 위하여 완전히 평평한 베리어프리 설계로 단차가 없다.

### 어중간한 자연보다는 도시에 거주

건물주인 浜野씨는 도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반면 어릴때부터 낚시라든가 아웃도어에 친숙하여 자연을 원점(原點)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의 교외에는 어중간한 자연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살았던 青山, 原宿 근처에 주택을 가지는 것이 좋다." (浜野씨)고 생각했다고 한다.

北山씨가 제안한 '계단식의 완충영역'은 도심거주의 새로운 형태이고 자연에 가까운 공조방식을 동시에 실현하는 멋진 화답이었다고 만족하고 있다.

北山씨와는 전에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의 사무실 팀 하마노 헤드코터가 들어있는 東京의 복합상업시설인 '크레인 팩터리'의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취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일하기가 쉬웠다.'고 말한다.

## 자연의 온열환경을 낚는 현대의 봉당(封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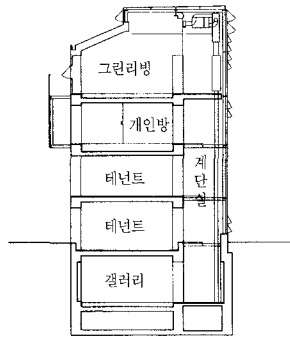
계단실의 종(縱)다트는 4층과 1층의 공기를 바꾸어 넣어 자연에 가까운 공조를 실현하고 있다.

설비설계를 담당한 郷設計연구소의 彦坂滿州男씨는 고기밀(高氣密), 고단열(高斷熱)건축을 폐쇄계(閉鎖系)라고 표현한다면 이에 대한 이 주택은 개방계(開放系)라고 설명한다. “기계로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영역을 바깥과 안쪽 사이에 개방계의 장치를 도입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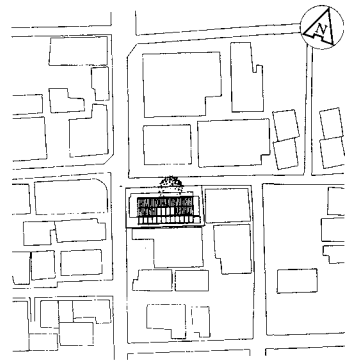
월의 최상층인 유리로 피복된 4층 그린 리빙의 상부에 모인 따뜻한 공기가 겨울에 밑쪽이 차가운 1층으로 종다

트를 통해 들어오게 된다. 반대로 더운 여름에는 따뜻한 공기를 자연환기로 집밖으로 방출함과 동시에 1층의 이중 벽내에서 땅속의 냉기를 그린 리빙으로 보낸다. 현대의 뒷마루라든가 봉당으로서의 자연적인 온열환경을 가져오는 공조(空調)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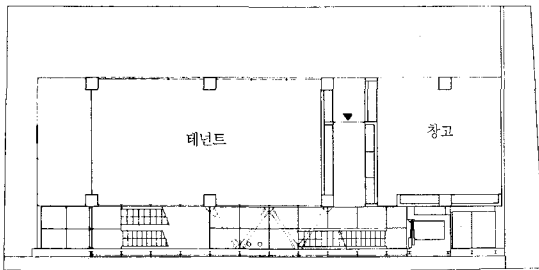
공기를 순환시키는 다트에는 제습(除濕)타워도 설치되어 있다. 여름에 공기의 순환에 의한 습도저절을 보호하기 위한 이 장치로 습도를 감소시킨다. 彦坂씨는 “채감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습도를 내리는 것이 좋다. 오히려 온도는 밖의 기온에 가깝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겐 쾌적함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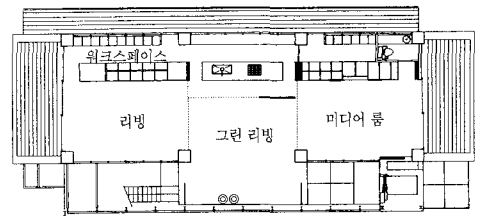
단면도(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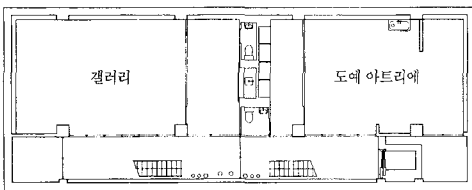
배치도(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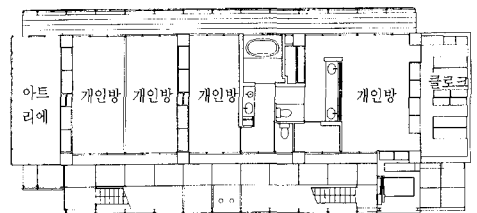
1층 평면도(1/300)



4층평면도



지하1층평면도



3층평면도